

전남대학교, 그 미래와 현주소

김윤수

전남대 기획연구실장



1. 들어가며

다 른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전남대도 전쟁의 와중에서 개교하였기 때문에 질이나 양적인 측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후 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점차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제 양적으로는 전국 어느 대학에 못지 않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전남대는 '학생운동의 메카'요 '민주화의 성지'라는 별명이 말하듯 대학의 역량이 외적 환

각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1. 21세기 연세대학교의 발전상 : 세계적 연구·교육 기관으로의 도약
2. 전남대학교, 그 미래와 현주소

경에 의해 소진되어 갔고, 내부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누적되었다. 전남대는 또한 우리나라 지방 국립대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도 그대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열악한 재정 지원 때문에 대학의 집중적 투자와

일관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은 기대하기도 어려웠고, 중앙집권적 국가 정책에 따른 인구의 중앙집중화와 인재의 서울 유출로 우수한 학생의 유치에도 상대적으로 불리함과 어려움이 따랐다. 더욱이 정부의 잦은 교육 정책의 변화는 대학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대학 내부적으로는 발전계획과 이의 실현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없었다. 총장이 취임할 때마다 계획은 구상되지만, 제대로 실행하기도 전에 또 다른 총장에 의해 새로운

계획으로 바뀌어 버리는 폐단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여건을 가진 전남대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의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생존 그 자체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자성의 움직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학의 발전은 질적 도약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이를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현주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반성을 기초로 장·단기적인 지향 목표를 정하고 모든 노력과 자원을 계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우리 대학에 거는 기대와 요구사항이 달라지기 시작한 때문이기도 하다.

전남대의 장기발전계획은 대학의 현재를 냉철히 분석하여 서로 상충되는 여러 요청을 널리 수용하고, 국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전남대학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0년 단위로 대체적인 대학 발전의 기본 방향을 천명하고, 그때 그때의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여 실현해 가는 탄력성이 부여된 계획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이루어진 전남대의 장기발전계획은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장기발전계획의 테두리 속에서 3~4년 단위의 중·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 실천의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근간으로 '92년부터 '94년까지 1차 중기발전계획이 수립 시행되었고, '94년부터 '96년까지의 2차 중기발전계획이 수립 진행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전남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목표를 포괄

적으로 살펴보고, 2차 중기발전계획 수행기간인 현재 이루어진 것들을 기술함으로써 목표와 실적을 대비시키고자 한다.

2. 발전계획과 실적

1) 효율적인 학사 운영

① 목표

대학교육의 내용과 그 효율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교수의 강의 수준, 기술, 성실도, 학생들의 수강 자세에 못지 않게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교육 환경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동기 유발책을 모색하고, 이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 투자 및 교육 환경 조성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 사회적 수요를 잘 고려하여 유사학과의 통폐합이나 계열화를 추진해야 하며, 학과간의 학문적 연관성이나 차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적인 문제의 재고도 있어야 한다.

② 실적

대학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시작된 무절제한 백화점식 학과 설치의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이를만 약간 다를 뿐 교육과정 등 그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는 학과들의 동시 설치의 대학 사회의 폐쇄성과 보수 성향과 맞물려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92년부터 유사학과의 통합을 추진하여 '95년도에 8개 학과, '96년도에 12개 학과의 통합을 완료했으며, 4개 학부를 신설하여 학부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통합학과에 대해서는 8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교수 채용에서도 우선권을 주고 있다.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각 단과대

학에 전산실습실을 마련했고 강의실 및 도서관, 전산소 등에 냉·난방 설비를 완비했으며, '96년부터는 대형 강의실부터 냉·난방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각 학과의 전공 강의실에 이에 걸맞은 시청각 교육용 기자재를 설치하고 있다.

2) 연구 여건의 개선과 연구소의 합리적 운영

① 목표

연구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수의 인사, 처우, 교수여건, 연구여건, 교수 자질개발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한다. 교수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확충, 개편하여 연구용품의 수입대행 업무, 연구기금의 적립, 중앙기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대학당국은 연구기금 확보에 노력하여 이를 적절히 배분, 지원함으로써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각 분야간에 연구가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한다. 연구 의욕을 고양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자극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승진, 연구비 배정, 국외연수자 선정, 투자 우선 순위 등의 평가 자료로 연구업적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연구업적집을 발간한다.

또한 연구소의 연구실적, 재원조달 능력, 구성원의 자질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인 운영 평가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유망한 연구소에 집중시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② 실적

'95년 한 해 동안에만 전남대 교수들이 수혜한 대·내외 연구비는 140억 원으로서 '94년도에 수혜한 연구비 총액 47억 원에 비하면 무려 93억 원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전남대 교수들의 과학기술 관련 논문발표 증가율은 전국 대학 가운데 2위에 달하는 등 대학내 교수들의 연구 의욕과 연구 풍토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들에게는 매년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며,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하는 교수에게는 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국제학술잡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수들의 자질개발을 위해서는 매년 30명의 교수를 해외에 단기 파견하고 있으며, 원로 공로교수 10명에게도 매년 해외 단기 파견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교수들에게 수준 높은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년 교수 연구비 지원사업을 '95년도부터 시행하여 총 17명의 교수들에게 1억 3천여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는 30명을 연구년 연구비 수혜자로 선정했다. 전남대는 전체 교수의 최소한 5%가 매년 연구년 연구비를 수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교수 안식년제의 실시도 구상 중에 있다.

지난 '92년 9월 신설한 연구지원과에서는 교수들의 연구비를 중앙관리하고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SIGMA 등으로부터 학술 연구용품 수입에 따른 절차를 대행하는 등 교수들의 연구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92년부터는 매년 2년마다 교수별 연구업적집을 간행하여 현재 세번째 업적집을 펴낸 바도 있다. 또한 매년 학내 연구소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각 연구소들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 실적이 우수한 연구소에 인센티브를 두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소 운영책을 마련하고 있다.

3) 우수 교수의 확보와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전환

① 목표

양질의 교수 충원을 위하여도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임 교수의 임용권이 현재는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에 분산되어 있으나 점차 장기적인 교수 충원 계획과 같은 정책적인 면은 대학 본부가, 우수 교수를 유치하는 실무적인 면은 학과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의 출발 직급을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조교수로 하고, 신규 임용 교수에게는 연구착수 경비를 지급하는 등 연구활동을 장려한다.

국제화와 지방화의 시대에 걸맞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역내 교육권의 구심이 되는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내용을 다양화하며, 교육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학원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새로운 입시제도를 수용하며, 교과목의 정비를 꾀한다. 그리고 각급 부설연구소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연구와 교육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학원의 행정기능을 통합시키고 특수대학원의 학문분야를 다양화하여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② 실적

우수한 신진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교수공채시 국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 교수에게는 신진 교수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

람을 연령이나 학위에 관계없이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실현하여 '95년 3명, '96년 4명의 교수가 특별 채용되었다. 교수 채용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본교 출신 교수 채용의 타과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 4년 동안 전남대에서 채용한 총 141명의 신입 교원 중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77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국내의 타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모교인 전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은 주로 의과대학이나 인문계열 일부 학과로서 총 36명,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한편, 지역사회에 대학원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일정 비율의 타대학 출신의 대학원 입학의 의무화하고,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면모를 착실히 갖추어 가고 있다. '96학년도 대학원 입시에서는 석·박사 452명이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되었다. 또한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수들의 연구비 간접경비의 대부분을 RA 지원금으로 책정하여 대학원생을 교수의 연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96년도에는 총 2억 8천 2백여만 원의 RA 지원금을 책정, 지원하여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던 납입금 수준의 장학금을 생활급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들의 면학 의욕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4) 효과적인 인력 관리와 경영의 합리화

① 목표

국립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교육과 연구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의 많은 부분이 기성회 직원들의 경상적인 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점이다. 무분별한 인

력 관리는 보직 체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인력 관리와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용 인력을 감축하고 보직 체계를 통합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실적

보직 체계를 개선하여 보직교수의 비율을 대폭 축소했다. 단과대학의 교무과장과 학생과장을 통합하여 교학부장으로 단일화하고, 대학의 학과장이 대학원의 주임교수를 겸직하도록 했으며, 특수·전문 대학원장은 관련 대학의 학장들이 겸임하도록 했다. 단과대학 교무과, 학생과, 서무과를 행정실로 통합했고, 법정 연구소를 제외한 비법정 연구소는 당해 대학장이 연구소장을 겸직하도록 했으며, 대학본부의 교무과와 수업과를 통합했고, 후생과를 학생과로 통합하였다. 또한 100여 명의 기성회 직원을 감축하여 매년 7억 원의 예산을 절감, 교육 환경의 개선, 장학과 후생 복지, 연구력 제고를 위해 투입하고 있다. 구내식당과 같은 학교 직영 사업도 모두 임대하고 민영화하였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의 감축과 함께 매년 계속되는 적자 사업을 정리하였다.

5)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

① 목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균형 있는 지역정책과 풍부한 자원, 기업의 활발한 참여 등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역대학이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열린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전남대는 지역사회와 하나의 공동운명체로서 지역과 대학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전남지역은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업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 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군복무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인력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농어촌의 발전을 주도해 갈 고급인력의 부재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어려운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지도자의 육성을 위해 일정 비율의 농어촌 '출신 학생을 무시험으로 선발하고 있다. 또한 전남대는 자동차, 철강, 조립금속 등 기계공업으로 개편되어야 할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광주 첨단과학 산업기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산·학·연 연구를 활성화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컨설팅 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② 실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으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노력은 전문대학원, 연구소, 부설기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소와 특수대학원들은 MBA 과정, 최고경영자 과정, 관리자 과정, 고위정책 과정, 여성교육 지도자 과정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언어교육원은 직장인이나 어린이를 위한 외국어 강좌, 전산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강좌 등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열린 교육을 실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도 크다. 앞으로 전남대에 세워질 사회교육원

에서는 본격적인 열린 교육체제의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농어촌의 인재육성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95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을 발의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되게 한 바 있다. '96년도에는 89명의 농어촌 학생을 특별전형하여 4년간의 입학금 전액과 기숙사 입사 특전을 베풀고 있으며, 졸업 후 우리 농어촌 살리기에 앞장서는 인재들이 되도록 키워 가고 있다.

'96년에는 지역 기업들에 최신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인적·물적 교류를 수행해 갈 지역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96년 멀티미디어 기술원 설립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업기술연구소, 기업경영연구소 등을 통한 활발한 산학협동 연구와 협동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가고 있다. 또한 전남대의 자동차 분야 국책 공대는 대학의 특성화 실현과 지역 산업 발전의 전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6) 대학 발전기금의 조성 및 면학분위기 쇄신

① 목표

대학 발전기금의 조성을 통해 21세기에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성된 발전기금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 학술연구, 학술교류, 후생복지, 대학 정보화 등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학내에 만연되어 있는 소음과 폭력을 방지하고 쾌적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집회 등의 엄격규제, 폭력방지 장치의 발동, 기물과괴에 대한 배상과 엄격한 학칙 적용 등이 따

라야 한다. 또한 각종 행사를 통합하여 시행하며 캠퍼스의 일정 공간을 휴식지역으로 묶어 소음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실적

대학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현재 102억여원의 발전기금이 조성되어 대학이 안고 있는 재정적 결함을 보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기금 조성의 성과는 대학 구성원, 지역사회 및 동문과 학부모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의 결실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조성된 발전기금의 과실금은 현재 6억 6천여만 원이 학술연구교류비로 쓰이고 있으며, 2억 6천여만 원이 학생 장학금, 1천 7백여만 원이 행정연수비와 교직원 해외연수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일시 폐지되었던 학사 경고제도를 '94년에 부활하였고, 학생회 간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 풍물연습장을 운동장 한 쪽 한적한 곳에 마련해 주는 등 면학 분위기를 쇄신했고, 소음공해에 시달리던 캠퍼스 주변 담장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했으며, 교내의 차량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또한 학생들의 향학열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방식을 소액 다수에서 고액 소수로 전환하고 있으며, '96년부터는 매년 100여 명의 해외연수생을 선발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목표

효율적인 교육·연구·행정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도 대학은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산망을 확충하고 원격 멀티미디어 교육, 화상회의, 사

무자동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요 지원 시설의 첨단 정보화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캠퍼스 공동구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대비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실적

교내 근거리 통신망이 '9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고, 이의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행정, 교육,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미래지향적인 인프라를 배경으로 이용자 중심의 쉬운 정보시스템, 국·내외 모든 정보의 접근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이다.

도서관은 전담 사서제 시행, 첨단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전자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교육과 연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교수들이 원하는 멀티미디어 교육매체들을 신속히 제작 지원하기 위해 '94년도에는 교육매체 제작실을 설립했다.

3. 맺으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새로움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더욱 힘들고 어렵다. 특히 우리 대학들의 일천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학의 모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점과 국립대학이라는 특수한 사정은 변화와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져있는 학생들, 전임강사만 되면 정년이 보장되어 각자의 아성을 쌓고 그 속에

머물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교수들, 안정된 신분으로 무사안일하게 신문이나 뒤적이며 세월을 보내려는 직원들, 그리고 열악한 재정 등이 바로 우리 대학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이제 그동안 실추되었던 대학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대학이 스스로 자기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문제는 대학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수많은 잠재된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일 것이다.

전남대는 지난 4년 동안 대학 거듭나기 운동을 전개하며 대학의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구적 노력들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지역의 중핵 대학 혹은 특성화된 대학으로서 탄탄한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고충이 상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솔직히 우리 대학이 가질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는 무엇이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확실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는 경향도 있다. 어떤 특정 분야로의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경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의 발전계획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국립대학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일관된 장기전략과 계획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오죽했으면 '서울대학교법'을 만들려 했는지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니다.

조직 구조가 다원화되고 확대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낙후된 경영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며, 대부분 국가 공무원들로만 구성

된 행정인력에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며, 선진국의 제도를 여과없이 그대로 적용해도 우리 대학의 체제가 과연 적절하게 운영될 것인지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21세기에 우리의 대학들이 지역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 기술과 정보의 창조 공간으로서의 대학의 존립 가치를 지켜가는 일이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남대가 이루어 온 개혁과 발전 방향은 연구력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대학,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선도하는 대학, 최첨단의 정보화된 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에 다름 아니었다.▲

김운수/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농업과학대학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뮌헨대, 미국 메인대, 프랑스 CNRS, 스웨덴 농업과학대학의 객원 연구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남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Immuno-gold Labelling of Extracellular Metabolites from White Rot Fungus Trametes Vexicolor"의 다수를 발표했다.

大學教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3-3891, 780-7942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
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
정·보완할 수 있습니다.